



광남일보



조간 제 8101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음력 4월 24일)

“전남광주에 기대 뛰어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온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8일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기념 반도체 팹 유치에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건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투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2·8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날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기획, 시민주권, 산업경제, 과학기술, 도시공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정은승 전 삼성전자 DS부서 사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백승주 순천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민형배 당선인, 대전환기획위 출범서 밝혀 “정부·기업 오래전 준비…조만간 계획 발표” 메모리반도체 팹 유치…최우선 목표는 ‘성장’

인수위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군공 항 이전사업, 국립의대 신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민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반도체 투자 계획이다.

민 당선인은 출범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설 만큼 규모 있는 투자 계획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소식을 들

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검토와 준비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진될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연계된 발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팹 유치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있어야

통합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시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역시 반도체 산업을 통합특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정은승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30~50년을 좌우할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발전이 아닌 쉼점점 수준의 도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반도체의 혁신과 도전 DNA를 지역 성장전략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메모리반도체 팹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인수위 내에 기업유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2면서 계속

이성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청년 기회 혜택 더 많이 주려해” “공공기관 2차이전, 효과 떨어져…집중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 거주 청년들을 위해 기회와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상경하는 청년들이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두 해 사이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방 우선 정책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어 “자산 형성을 지원하지는,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 강화하는 지 등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보다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며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의 신규 고용이 10%p가 늘었고, 지방의 관광 수요도 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경쟁률도 이번엔 많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은 해수부 (이전) 때문이었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의 사상 최대의 경쟁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제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라며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산업이나 하다 못해 공기업이나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수도권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이후 행정통합을 이루면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뽑은 대표들(선출직)이 다 있는데 그만둘 수 있겠다.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임기가 만료돼) 어떻게 하기 어렵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번처럼 분산하면 집중 효과가 떨어진다. 자체 에너지 발생(후방 효과)이 적다”며 “이번에는 조금 몰아보낼 생각이다.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이전 이후 행정통합을 하면 손해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에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하는 데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면으로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8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정은승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위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종년 전라도닷컴 편집장·발행인, 양형정 전남대 시용합대학장, 윤나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백승주 국립순천대 석좌교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정은승 대전환기획위원장(전 삼성전자 DS부서 최고기술책임자), 김영수(사)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단대 연구원장,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영남에 민주 씨앗 뿌릴 터”

당선증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사진)이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상욱 당선인은 이날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을 한 뒤 “영남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행동할 수 있었던 힘은 1980년 5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는 곳도 5월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영남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첫걸음이 이번 지방선거였다”며 “그 약속을 보고드리기 위해 당선증을 들고 왔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5월 열사들이 꿈꿨던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그는 “영남에서 변화가 생겨야 12·3 내란을 기획했던 세력이 힘을 잃게 되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방명록에 ‘영남에서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주의 발을 개간해갈을 보



고드립니다. 지난 1월 5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오월 선배님들의 영원과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5월 17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총괄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착용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 전남남도경찰청 |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보안공단 | GTCL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